

<書評>

Richard J. Barnet and Ronald E. Müller

Global Reach

—The Power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immon and Schuster, New York, 1974, pp.388)

閔相基

I. 序

多國籍企業이 二次大戰以後 急成長을 보이며 世界經濟에 그 比重이 漸增하자 多國籍企業의 生成動機, 運營上의 特異點 및 世界經濟, 政治, 文化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는 論文과 著書 들이 또한 많이 出版되었다. 그러나 元體가 多角的인 側面을 가진 物體라서 그런지 著者가 分析觀點에 따라 多國籍企業의 評價가 현저하게 틀리고 있으나 大體로 著者가 어느 利益子를 屬하느냐에 따라 그 評價觀點이 決定되는 경향들이 많았다. 即 美國勞動組合(AFL-CIO)이나 또한 이의 政治的 比重에 壓力を 받고 있는 美上院의 調查報告에 따르면 多國籍企業은 美國內 고용을 外國에 輸出하는 것으로 表現되고 있으며 投資對象國이나 國際聯合의 報告書等에는 多國籍企業이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自主性을 잊게 한다는 點들을 強調하는 等 多國籍企業의 비관적인 側面을 強調하는 反面 多國籍企業自體에서 나오는 論文이나 연설문들은 世界經濟의 未來의 役軍으로써의 多國籍企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比較的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지지 않은 學界에서는 多國籍企業의 영향들을 第一 客觀的 인 立場에서 冷澈하게 分析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對體로 市場經濟의 自律的인 힘이 經濟發展의 제일 큰 原動力이 된다는 大命題下에서 全世界를 하나의 經濟單位로 合理的인 經營을 追求하는 多國籍企業에 對해 긍정적으로 結論지어질 경우가 많다.

이러한 一般的의 多國籍企業의 分析觀點에서 볼 때 예일大學校 교수였던 Richard J. Barnet 교수와 아메리칸大學校 教授인 Ronald & Müller 教授의 本著는 약간 異質의이라 할 수가 있다. 即 本書는 多國籍企業이 結論的으로 政治 文化 및 환경의 不均衡을 초래할 뿐 아니라 多國籍企業의 第一 큰 公적으로 내세우는 經濟發展面에서도 그 發展의 質的分析을

하면 오히려 빈부差異의 甚化 및 고용의 감소 等을 초래한다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本書가 1974년 가을 出版되고서 學界에서는 그 分析이 피상적이라 하여 큰 觀心을 끌지는 못했으나 社會的으로는 best seller로 몇주간 많은 부수의 책이 팔렸을 뿐 아니라 Time紙나 Business Week紙에도 書評이 나올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著書여서 多國籍企業을 研究하는 사람들은 學問的인 가치로써는 아니더라도 이 冊이 社會的 공감을 일으켰다는 事實에 비추어 一般人의 多國籍企業에 對한 認識構造를 아는데 꼭 必要한 冊이라 할 수 있다.

II. 內 容

本書는 크게 3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第一章에서는 多國籍企業 經營者들의 經營哲學을 分析했으며 第二章에는 多國籍企業이 投資對象國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고 第三章에서는 投資國 特히 美國에 파급되는 效果 等을 分析하고 있다.

歷史的으로 世界를 하나로 支配 내지 統治하고자 한 政治家나 哲學者들은 많았으나 世界를 하나의 個體로 運營하기 為한 組織과 技術, 資本 및 思想을 捷便하기는 現代의 多國籍企業經營者가 처음이다. Stephen Hymer가 말했듯이 全國的인 망을 가진 消費者 연쇄점이 길가의 구멍가게를 밀어내듯이 世界的인 망을 가진 多國籍企業이 根本的으로 國內市場을 相對로 하는 企業體를 도태시킬 것이라고 多國籍企業家들은 믿고 있으며 이러한 世界的組織을 運營하기 為해 中央集權的 經營組織과 全世界를 하나의 經濟單位로 보는 經營觀點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의 根本哲學은 18세기의 合理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生產費用, 資本費用들을 極小化하기 為해서는 政治的인 國境에 關係 없이 世界 어느 地域에서나 企業活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合理主義的 觀點에서 볼 때 人爲的으로 世界를 分斷하여 놓은 政治的 國境은 非合理的 民族主義의 根源이 된다고 多國籍企業家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IBM社長의 말을 빌리면 經營上으로 分析할 때는 마치 離度가 아무런 意味가 없는 바와 같이 政治的인 國境도 아무런 意味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世界主義를 표방하는 多國籍企業의 제일 큰 벽은 文化的 地域的 單位의 政治的 國境이며 또한 이에 배경을 둔 民族主義인 것이다. 더구나 經濟的으로는 第二次大戰以後 世界貿易의 伸張이나 多國籍企業의 伸張 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世界主義로 가까이 가는 듯한 인상이나 政治的으로는 過去植民地國家로서의 뼈저린 經驗을 가진 開發途上國家들이 主權國家로서의 自主性維持를 國家政策의 제일 큰 目標로 채택함으로써 民族主義意識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實情이어서 이들의 갈등이 바로 앞으로 多國籍企業의 持續的인 成長

에 第一 큰 문제점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第一章에서는 比較的客觀的立場에서 多國籍企業家의 經營哲學과 또 이의
民族主義와의 갈등을 分析하였는데 第二章부터는 갑자기 그 分析觀點이 바뀌어 多國籍企
業이 投資對象國 특히 라틴 아메리카 諸國에 미친 經濟的 惡效果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多國籍企業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늘 자신있게 多國籍特有의 寄與라고 내세우는 것
은 보다 낭만合理的인 經營에 依한 投資對象國 그리고 나아가서는 世界的인 經濟發展인데
本書는 이 多國籍企業의 經濟發展寄與度 自體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即 라틴 아
메리카에서 多國籍企業은 外國으로부터 資本을 들여와 投資對象國의 國際收支를 改善시키
기는 커녕 資金需要의 85%를 投資對象國內에서 調達하여 國內資金을 고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果實送金으로 國際收支도 惡化시키고 있으며 技術導入面에서도 美國과 같은
先進國들의 消費物資生產技術 같은 것을 導入하여 참으로 投資對象國이 必要로 하는 技術이
導入되지 않는 한편 대개가 資本集約的인 技術이라 고용효과는極히 낮다는 것이다. 또한
廣告를 通해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양보다는 코카콜라라는 상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世界的인 식량문제 및 영양실조 근절문제 等을 해결하는 게 아니
라 더욱 甚化시키고 있다는 고발이다.

多國籍企業은 投資對象國에만 上記한 바와 같은 惡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投資國 即 多國籍企業의 母國 即 美國에도 많은 惡影響을 미친다고 第三章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本書는 이의 理由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點에 基因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多國籍企業이 國際化함으로써 生產費 및 資本費用을 절감하기 때문에 國內市場만을 相對로 하는 企業보다 더 힘이 세어 從來는 당해產業에 있어서 독과점 상태가 되어 버린다. 둘째로 美國內政政策은 大企業에만 유리하게 된다. 셋째는 社內去來에서 一般化된 트랜스퍼 프라이싱 (transfer pricing) 때문에 市場經濟의 自律的인 힘이 상실되었다. 넷째는 多國籍企業이 域外金融市場 特히 유로 달러 市場을 利用함으로써 美國의 自律的인 金融政策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다섯째로 多國籍企業이 世界에 散在해 있는 子會社를 通해 流動性이 큰 反面根本의 壓力を 받고 있는 美政府는 世界的인 侧面에서 流動性이 制約으로 美國市民들의 政治的인 壓力を 받고 있는 美政府는 世界的인 侧面에서 流動性이 制約되어 있다는 點이다. 上記한 다섯가지 理由로 本書는 多國籍企業이 美國經濟를 라틴 아메리카 經濟화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例로 美國內에서의 貧富差異의 甚化, 고용의 감소, 國際收支의 惡化 等을 들고 있다.

이러한觀點에서 本書는 AFL-CIO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Hartke-Burke案과 보조를 같

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輸入의 制限, 海外投資에 對한 稅金控除制度(tax credit)를 폐지하고 資本과 技術輸出을 禁止하며 海外投資로 因하여 일자리를 잃은 勞動者들의 再훈련을 爲한 政府의 보조 等을 主張하고 있다.

III. 結

第一章에서 多國籍企業家의 經營哲學分析에서는 著者들이 수많은 多國籍企業家와의 인터뷰 혹은 그들의 연설문의 인용 等으로 客觀的인 分析을 하였으나 第二章과 第三章의 多國籍企業의 經濟的 영향分析에 있어서는 根本的으로 자료가 불충분한 점들이 많았다. 即 투자 대상국에 對한 經濟效果分析에서도 어느 特定國家 特定產業에의 邑話로 一般化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구나 美國에의 모든 經濟문제가 多國籍企業때문에 惹起되었다고 단정하는 테는 보다 많은 자료가 뒤 따라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本書는 「成長의 限界」를 발표한 로마크럽과 마찬가지로 成長이 나쁘다는 편견下에서 쓰여진 글로써 편파적인 자료수집에 依한 一般化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本書에서는 多國籍企業의 힘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多國籍企業이 세계적인 조직망을 通하여 어느 特定한 國家보다 國際的 流動性이 큰 것은 事實이지만 多國籍企業의 어느 特定한 子會社는 당해投資對象國의 現地法人으로써 그 나라의 法에 依해 統制를 받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實際로 이러한 投資對象國의 힘을 意識하여 多國籍企業은 全世界的 經營戰略 唯一路線에서 약간씩 離脫하여 子會社個別間 特殊한 事情을 고려한 個別的 經營을 하는데 全世界的 戰略에 따른 統一的 經營(unification)과 子會社當 個別的 經營(fragmentation)의 二律背反의 두 求心力에서 均衡點을 찾는 것이 多國籍企業의 가장 核心的인 課題인 것이다.

無理한 一般화와 편견으로 本書는 學問的으로 볼 때 客觀性이 결여된다고는 하나 이 册의 제일 큰 공헌은 多國籍企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潛在영향을 지적한 點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點이 一般대중에게 많은 觀心을 불러 일으킨 理由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册의 수많은 主張에 對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어쩌면 저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기 보다는 多國籍企業의 活動에 對해 너무나 뒤떨어진 投資國, 投資對象國 및 一般的인 學界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客觀的인 多國籍企業評價를 爲해 보다 많은 정보수집과 연구가 뒤따라야겠다는 點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